

가을정취, 포천에서 만끽

지역축제에서 국제 대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포천아시아미술제 시작으로 억새꽃·술 축제로 이어져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각종 축제, 행사들이 개최된다. 특히 올 가을 잔치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 동안 개최되는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를 시작으로 포천시민 뿐 아니라 전국 단위행사 더 나아가 국제규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9월23일~10월23일)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 및 로비, 야외, 소극장 등에서 국내초대 작가 52명과 외국 작가 12개국 34명이 참여한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미술전시 및 퍼포먼스, 비디오 상영도 함께 이루어진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중국 장희모 감독의 '인생', 이탈리아 라스트라나 감독의 '길', 국내 이만희 감독 작품 '삼포로 가는 길', 임권택 감독 '길소뜸', 전수일 감독의 '나를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의 영화가 상영된다.

▶ 제4회 전국 한식백일장 (9월28일)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음 이덕형 선생 추모 전국한식백일장 대회가 오는 28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국한식백일장은 포천문화원이 주최하고 포천시와 시의회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개최되며 전국 한시동호인과 한학자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10월1일~10월4일)

문화관광부와 KBS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주관하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 등이 참여해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또 개막 하루전인 10월1일부터 2일까지는 청소년들에게 민속예술의 귀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제12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가 동일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각종 축제, 행사들이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억새꽃 축제다.

장소에서 개최된다.

4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공식 경연 외에도 포천시립민속예술단과 경기도립예술단, KBS국악한마당 특별공연, KBS라디오 공개방송, 포천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있는 일본 호쿠리키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민속예술단의 공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 (10월5일~7일)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포천시가 주관하고 포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가 아도니스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제무역상담회는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포천관내 기업과 직접 만나 원자재수입을 비롯한 기술제휴, 투자유치, 공동마케팅 등 실질적인 거래와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동안 미국인 바이어를 비롯한 일본, 대만, 인도, 러시아 등 27개국 49명의 바이어 및 포천관내 207개 제조업체들이 만나 수출입 및 투자 상담을 벌인다.

▶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10월8일과 9일)

5만여평의 광활한 산등성이에 펼쳐놓은 듯한 하얀 억새밭은 그야말로 10월 가을 정취의 장관을 연출한다. 여기에 산정호수 맑은 물까지 더해져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억새꽃 축제행사 전야제 및 길놀이로 시작으로 억새홍보아치 탐, 30명 억새집 만들기, 공예양선발대회, 명성산 7080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억새꽃 축제의 꽃은 역시 산행이다. 산정호수를 끼고 명성산 기슭을 따라 4km를 올라가면 5만여평의 산등성이가 온통 억새꽃을 연출한다. 게다가 울리는 산학인 허영호씨가 참가해 팬 싸인회를 가진 뒤 관광객들과 함께 산을 오를 예정이다.

▶ 제1회 2005 대한민국 술 축제 (10월22일과 23일)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술 축제는 막걸리의 고장 포천, 이동백운계곡 관광지에서 10월22일과 23일 이틀간 개최된다.

이번 술 축제는 전국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포천지역 막걸리를 비롯한 전국 전통주 업체들이 참가한다. '술과 길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술 축제는 옛 선현들의 풍류를 재현할 수 있는 주막과 이동감비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또 이번 술 축제는 다양한 술과 먹거리, 특산물, 문화예술공연 등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10월19일)

올해로 시 승격 3주년을 맞아 포천시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10월18일 저녁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연예인 설운도와 이광조, 신효범 씨 등을 초청해 기념 축하 공연을 펼친다.

또 시민의 날 당일에는 포천시민과 국제 자매 우호도시 시장, 의장, 대사 등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체육행사와 시민노래 자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가 종료 직후 정성산 정상에서 30분 동안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9월25일 제1회 체육회 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고 10월15일과 16일 이틀간 제4회 운약산 단풍축제, 10월 중순경 2005개성인삼 축제도 개최될 예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개정선거법 여파 시상금 취소 속출

포천시, 시민의 날 행사 등 저촉여부 면밀 검토
포천선관위, 문의 답변에 본래 업무 처리 차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화된 개정 선거법이 적용됨에 따라 각종 시상식에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개정 선거법을 의식해 매년 포천시 문화상 5개 부문 수상자들에게 금 10돈을 수여했으나 올해는 포기했고 9회째를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역시 선거법을 의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포천시가 주최하는 제1회 체육회장배 탁구대회를 비롯한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제4회 운약산단풍축제, 대한민국 술 축제 등에서 포천시장 명의의 부상이나 기념품, 식사 등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 19일 개최예정인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진행절차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포천시장 명의의 초청장 발송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개최되는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상금 제도가 사라진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서 단체장 명의의 상금이나 식사, 기념품, 부상 등을 주는 행위를 모두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선거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주로 문의하는 사항은 포천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시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각종 준공식에서의 식사제공 및 기념품, 부상 지급여부 등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개정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지켜본 후 이번 달 말경까지 신중히 검토한 후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질서상, 화합상 등 14개 부문에 걸쳐 상장과 더불어 시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나 문서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폭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 본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쌀나누기로 따뜻한 사랑 전달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독거노인등과 쌀나눔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지회장 강태선)는 지난 1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및 복지시설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공무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쌀을 민족의 명절이 추석을 맞이해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모금된 사랑의 쌀은 총 6천231kg으로 지난 1일부터 행사당일인 12일까지 모금했으며, 포천시 공직자 1천671kg, 새마을지도자 2천790kg, 관내 초·중·고학생 1천770kg이 다.

사랑의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200~250kg씩 총 3천150kg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불량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지회장 강태선)는 지난 1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및 복지시설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은 개각 읍·면·동·별 불우이웃 251kg이 지원됐다. 1인당 20kg씩과 지난 19일 개최된 외국인 근로자 문화페스티벌에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도가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뜻을 올립니다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마침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1,000만 도민에게는 세계수준의 복지와 삶의 수준을 목표로, 첨단투자기업에게는 세계수준의 기업환경과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아닙니다.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